

기본간호학실습에서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적용 사례: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김해진, 천의영, 김은경*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부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Tool for the Performance Outcomes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A Case Study Focused on Evaluating of Communication Ability

Haejin Kim, Eui Young Cheon, Eun Ky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시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 결과를 기술한 사례연구이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구성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 대학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 중인 94명을 대상으로 적용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시 평가되어야 할 의사소통능력 항목으로 5가지 요인(자기 소개, 눈맞춤,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 치료적 접촉)이 도출되었으며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기본간호술 수행 시 평가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 루브릭에 따른 학습성과 달성도는 전체 학생의 95.8%가 '중' 이상에 도달하여 목표 성취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졸업 시 역량으로 핵심기본간호술과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하여 학습성과 달성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성과 평가과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 다양한 평가도구와의 비교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is the report of a case study to describe the results of applying an evaluation tool for communication ability whe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The communication ability evaluation tool was constru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dvice. The tool was applied to test 94 students who were taking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9. As a result, five factors (self-introduction, eye contac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rapeutic touch) were derived as evaluable items of communication ability to be evaluated whe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 and were evaluated whe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to measure vital signs. The average communication ability was 3.96 out of 5 points. According to the rubric, 95.8% of all students attained 'medium' and reached their goal achievement lev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an important basi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utcome evaluation process and for constructing a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Further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communication ability evaluation tool and comparative studies with various evaluation tools are suggested.

Keywords : Communication Ability, Performance Evaluation Tool, Performance Outcome,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Nursing Education

본 논문은 2019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순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Kim(Suwon Women's Univ.)

email: ekk0323@swc.ac.kr

Received February 4, 2020

Revised March 2, 2020

Accepted April 3,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국내의 보건의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즉 간호학 학사학위 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는 교육의 직접적 목표인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 PO)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PO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그러나 PO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함에 있어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상황 및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되어야 하기에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 각 교육기관은 PO별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논리적인 개념 정립을 통해 그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에서 PO3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다.'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간호교육에서 특히 실습교육에서 반드시 숙련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간호는 환자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와의 상호작용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간호실무에서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3], 다양한 간호학 교과목에서 PO3를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학습성과의 일부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은 현장 실무능력의 기초가 되는 기본간호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교과목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운영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치료적 의사소통술 평가는 이후의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할 때 긴장하고 위축되어 당황하게 되므로 [4] 교내실습 환경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PO3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체계의 평가항목에서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평가도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는 문항수가 많고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기본간호학실습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5],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 전공이 다른 학문에서 제시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에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반영되지 않아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간호학에서 사용하는 일부 의사소통 평가도구는 간호사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이나 기술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6]. 간호사의 의사소통술을 평가하기 위한 선행 도구로는 Yodkowsky 등 [7]이 개발한 도구가 한국어로 번안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제한된 시간동안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술기를 빠짐없이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동시에 16개의 의사소통술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를 반영하면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를 기반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 적용할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 평가도구와 루브릭을 구성한다.
- 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시,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다.
- 3)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여 '치료적 의사소통' 학습성과 달성도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핵심기본간호술기 수행 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사례 연구이다.

2.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를 검토한 후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사용가능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제시한다. 둘째, 간호학 교수의 검토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수정, 보완한다. 셋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핵심기본간호술기 평가에 적용하여 학습성과 달성도를 확인한다.

2.2.1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구성

핵심기본간호술기 수행 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국내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마다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대상과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의사소통능력 평가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평가도구를 적용할 기본간호술기 수행 상황, 환자-간호학생 간의 의사소통 상황, 술기평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요인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각 문항에 대한 명확성, 용어의 이해 용이성,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2.2.2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수정 및 보완

의사소통능력 평가와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평가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운영과 핵심기본간호술기 평가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의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핵심기본간호술기 평가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항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평가 문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여러 평가자가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2.2.3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적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의 적용 대상자는 S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 중인 재학생 94명이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구성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이때 학생들이 수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기는 활력징후 측정으로 선정하였다. 활력징후 측정은 간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간호 업무 중의 하나이며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술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활력징후 측정 과정에서 환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은 환자와의 라포 형성뿐 아니라 환자의 간호 요구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핵심기본간호술 ‘활력징후 측정’은 맥와 체온, 맥박과 호흡, 혈압을 순서대로 측정하는 절차이며 실습파트너인 학생이 환자 역할이 되어 서로의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학생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대상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교수자는 학생이 절차에 맞게 활력징후를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학생과 대상자의 의사소통 반응을 확인하여 각각의 평가도구에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모든 학생들의 수행평가가 완료된 후 개별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결과와 함께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에서 누락된 부분을 피드백 하였다. 이후 의사소통능력 평가 결과와 학습성과 달성도를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교수학습법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에 직관적으로 평가하던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측정할 것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위험성은 거의 없다.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에서 평가 방법과 배점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이 중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5점인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행평가 전에는 학생들에게 ‘활력징후 측정’에서 5가지 항목의 평가도구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이 평가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하였다. 수행 평가 종료 후에는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도구 적용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평가도구의 항목별 평균과 학습성과 달성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구성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사용할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평

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탐색하였다.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연구를 제외하고 표준화 환자 또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요인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의 경우, 학생은 보통 10분 내외의 제한 시간에 기본간호술기를 수행하여야 하고, 교수자는 술기 평가표에 근거하여 학생의 술기 적절성을 동시에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평가 문항이 길거나 많으면 평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평가시점을 놓치거나 술기 평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평가하는 한정된 시간동안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며 동시에 빠르게 의사소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평가한 연구에서는[8] '자신 소개, 따뜻하며 전문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모습,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주는 것, 격려의 말과 끝마침 알리는 말을 제공'하는지 5가지 항목으로 간호학생과 표준화환자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된 이후 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연구에서[9,10] 사용이 되었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에게 설명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이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점수평가가 모호한 문항이 있어 제한점이 있다.

한편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 상황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관계형성하기, 힘 북돋우기, 공감 및 반응하기, 교육 및 피드백하기' 요인을 포함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5]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술기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평가가 어려운 '갈등이나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평가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탐색으로 기본간호술기 수행시 평가되어야 할 요인을 추출하여 구성된 의사소통능력 평가 도구는 Table 1과 같다. 이 평가도구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 만점으로 총점은 5점에 해당한다. 의사소통능력의 요인은 '자기소개, 눈맞춤, 공감적 지지, 정보 제공, 치료적 접촉'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자기소개와 공감적 지지,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적절한 눈맞춤과 신체적 접촉 여부를 평가하였다.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에 따른 루브릭은 학생들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성과 또는 능력을 Bloom and Krathwohl definition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3단계 수준(상, 중, 하)으로 설정하였고[11], Arter & McTighe [12]의 Analytic rubric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2). PO3의 학습성과 달성도는 전체학생의 80%이상이 '중' 이상의 수준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Evaluation Tool for Communication Ability

Items	Score
1. Did the student introduce herself to the subject?	
2. Are there proper eye contact with the subject?	
3. Did the student have sympathetic communication (emotional support, empathy, etc.) with the subject?	
4. Did the student provid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subject? (information about procedures, time required, test results, etc.)	
5. Did the student have a therapeutic touch when physical contact with the subject?	

Table 2. Rubrics for Assessing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Exampl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urriculum')

Evaluation item	Paper test	Rubrics							
		Attendance	Report	Performance test	%	High	Medium	Low	
CO1	PO2			50	50	45≤	35-45	<35	
CO2	PO3			5	5	5 (by evaluation tool score)	3-4 (by evaluation tool score)	<3 (by evaluation tool score)	
CO3	PO5	30	5		35	30≤	22-30	<22	
	Attendance		10		10	9≤	5-8	<5	
	total (%)	30	10	5	55	100	86≤	65-85	<65

3.2 평가도구를 적용한 의사소통능력 평가결과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의 수행평가 항목인 '활력징후 측정'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도구를 적용한 결과, 활력징후 측정 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평가도구의 세부 항목에서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접촉 시 치료적으로 접근하였는가?' 항목이 활력징후 수행평가에서 1점 만점에 0.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 공감 반응, 경청 등을 포함하는 '대상자에게 공감적 지지(정서적 지지, 공감 반응 등)를 보였는가?' 항목이 1점 만점에 평균 0.65점으로 나타나 2번째로 점수가 낮았다.

Table 3. Result of Communication Ability Evaluation

Items	Mean Score
1. Self introduction	0.98
2. proper eye contact	0.77
3. sympathetic communication	0.65
4. Providing information	0.94
5. Therapeutic touch	0.62
Total	3.96

환자와 첫 대면 시 학생간호사인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자기소개' 항목이 평균 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간호술기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평균도 0.94점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대화 시 또는 술기 수행 시 눈맞춤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평균 0.77점이었다.

3.3 평가도구를 적용한 학습성과 달성도 결과

루브릭에 따라 학습성과 달성도를 확인한 결과, 활력

Table 4. Assessing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 (Exampl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urriculum')

Evaluation item	Evaluation tool	n(%)
CO1 PO2	Performance test (nursing skill)	High 42(44.7%)
		Medium 51(54.3%)
		Low 1(1.0%)
CO2 PO3	Performance test (communication ability)	High 39(41.5%)
		Medium 51(54.3%)
		Low 4(4.2%)
CO3 PO5	Paper test, Report	High 51(54.3%)
		Medium 36(38.3%)
		Low 7(7.4%)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	PO3: 95.8% of all students have reached 'medium' or higher to achieve the goal	

징후 측정 시 의사소통능력은 상이 41.5%, 중이 54.3%로 전체 학생의 95.8%가 '중' 이상에 도달하여 목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구성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의 주요 항목은 자기소개, 눈맞춤, 공감적 지지, 정보 제공, 치료적 접촉이었다. 일부 연구에서[13] 보고한 환자 돌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존중, 요구해결, 관계형성, 환경 조성, 진정성으로, '존중'의 내용에 환자의 개별적 존재를 인정하는 이름이나 특성의 기억, 인사, 친절한 말투와 표정, 쉬운 설명, 환자 반응의 확인 등이 포함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듣는 간호학생으로 수행평가 시 실제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평가도구에 근거한 반복적인 술기 교육은 추후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이 간호사로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학습된 화법을 외운 듯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표정, 음성, 미소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14].

한편,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사용할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5] 본 연구결과와 달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치료적 접촉'을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아 '환자나 환자 가족의 손을 잡았다', '간호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나 가족에게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적절히 환자의 신체를 접촉했다', '대화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었다'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측정이 모호하며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한국문화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시각과 청각 정보를 자극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한 부분으로[15],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 수집하므로 비언어적인 부분도 의사소통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간호 수행 시 간호사의 자세, 팔의 위치, 몸짓, 미소 등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고,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료진 간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평가 될 필요가 있다[5]. 표준화 환자와 간호학생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눈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다른 비언어적 표현에 비해 대상자의 어깨 두드리기, 손잡기 등의 치료적 접촉은 관찰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대상자의 힘 북돋우기를 위해서는 치료적 접촉의 사용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본 연구 결과,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3.98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의사소통능력 평가항목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간호수행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눈맞춤을 함에 있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만 몰두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8]와 유사한 것으로 앞으로 기본간호술기 교육에서 술기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떠한지 학생들에게 함께 피드백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술의 5가지 세부 항목 중 대상자에게 자기소개와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인 반면, '대상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정서적 지지, 공감 반응 등)을 하였는가?' 와 '대상자에게 신체적 접촉 시 치료적으로 접근하였는가?' 부분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술 중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의사소통 항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 차시 교육 과정 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표정 등의 접근 방법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그 효과를 재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술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본간호학실습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시 의사소통능력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학생들의 95.8%가 '중' 이상에 도달하여 목표 성취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기본간호술기 및 문제해결과정과 함께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간호술기 훈련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16,17]. 또한 치료적 의사소통이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편안함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이행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18]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의 치료적인 의사소통 접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1분 내외였다. 본 도구는 술기 수행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문항이 구성된 만큼 단순 술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일반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도구에 비해 관련 요인이나 문항수가 적으나 평가도구의 사용 대상이 간호학과 저학년이며 술기 평가와 함께 평가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반면 재현 상황의 시나리오에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사소통이 나타나 본 도구로 점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의 핵심간호술기 평가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평가도구를 매 학기 기본간호학실습 수행평가에 적용하고, 1년 마다 PO3의 학습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달성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또는 미달성 시 문제점 등을 찾아 다음 학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업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개선 결과를 대학 내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PO3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 평가에서 미흡하거나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 또는 표정, 제스처 등의 접근 방법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그 효과를 재평가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기본간호술기 수행 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적용한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도구의 타당화 부분에 한계를 지니므로 도구개발 절차에 따라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1개의 간호술기에만 적용되었으므로 향후 다양한 핵심기본간호술기 상황에 적용 한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의 학습성과 평가 과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시 평가되어야 할 의사소통능력 항목으로 '자기소개, 눈맞춤,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치료적 접촉'이 도출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를 수업에 적용한 결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의 핵심간호술기 평가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사소통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치료적 의사소통 수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와의 비교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andbook for College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18, 2018
- [2] B. N. Kim, S. O. Kim, "A Study on Assessment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ed on Communication Ability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2, pp.154-166,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2.154>
- [3] B. McCarthy, A. Trace, M. O'Donovan, "Integrating psychology wit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Addressing the challenge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4, No.3, pp.227-232, 2014.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4.01.008>
- [4] M. Y. Park, S-Y, Kim,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1, pp.23-35, 2000.
- [5] H. M. Yang, S. Y. Hwa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8 No. 1, pp.95-105, 2016.
DOI: <http://dx.doi.org/10.7475/kian.2016.28.1.95>
- [6] M. Yu, S. H. Park, K. O. Park, "A review literature on communication in nurses", *Korean J Health Commun*, Vol.9, No.2, pp.99-108, 2014.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14.9.2.99>
- [7] R. Yudkowsky, S. M, Downing, L. J. Sandlow, Developing an institution-based assessment of resident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Academic Medicine*, Vol.81, No.12, pp.1115-1122, 2006.
DOI: <https://doi.org/10.1097/01.ACM.0000246752.00689.bf>
- [8] M. S. Yoo, *Development of standardized patient managed instruction for a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9] K. S. Hyun, H. S. Kang, W. O. Kim, S. Park, J. Lee, S. Sok, "Development of a multimedia learning DM diet education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and analysis of its effects on clinical competency and learning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9, No.2, 249-258,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2.249>
- [10] K. S. Hyun, Y. Jeong,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Competence on Diabetic Diet Educ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Self-efficacy, Communicati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2 No.2, pp.221-228, 2010. Available from: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678.2010.22.2.006&res_svc_cd (accessed Mar. 06. 2020)
- [11] K. S. Jang, B. N. Kim, S. H. Jeong, Y. M. Kim, J. S. Kim,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 on Improvement in Nursing Leader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5, pp.540-552,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5.540>
- [12] J. A. Arter, J. McTighe, Scoring rubrics in the classroom: Using performance criteria for assessing and improving student performance. Thousand Oaks, Calif.: Corwin Press: 2001.
- [13] M. L. Heo, S. B. Im, "Development of the Patient Caring Communication Scale", *J Korean Acad Nurs*, Vol.49, No.1, pp.80-91, 2019.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49.1.80>
- [14] H. K. Son, D. H. Kim, "Communication of Students in Nursing Simulation using Standard Pati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5, pp.267-276,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67>
- [15] S. J. Chae, "The Importance of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2, No.2, pp.149-150, 2010.
DOI: <https://doi.org/10.3946/kjme.2010.22.2.149>
- [16] J. Y. Hong, J. A. Park, "Effect of Basic Nursing Skills, Problem Solving process,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0, pp.429-446, 2017.
- [17] M. H. Lee, H. K. Kim, S. H. Jeong, I. O. Moon,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17, No.1, pp.106-114,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1.106>
- [18] H. R. Paik, K. J. Kim, "How to improve patients'satisfaction in healthcare organization? Healthcare service quality classification using Kano

Model”,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9, No.2, pp.73-88, 2014. Available from: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422333818170.pub> (accessed Mar. 06. 2020)

김 해 진(Haeji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간호교육, 암환자 간호

천 의 영(Eui Young Cheon)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삶의 질, 노인건강, 사회연결망

김 은 경(Eun Kyung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삶의 질, 말기환자 간호, 기본간호